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자체에서 시행한 무료 한약 지원 사업의 만족도 조사
- 일개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교실

김수현, 이은규, 최유진, 전영선, 조은진, 고희제, 유재희, 박경미, 조성희, 양승정

ABSTRACT

A Study on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Free Herbal Medicine Support Program for Mothers with More Than Three Children

Soo-Hyeon Kim, Eun-Kyu Lee, Yoo-Jin Choe, Yeong-Seon Jeon,
Eun-Jin Jo, Hong-Je Go, Jae-Hui Yu, Kyung-Mi Park,
Seong-Hui Jo, Seung-Jeong Yang

Dept. of Korean Gynecology and Obstetr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Objectives: This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project of providing free herbal medicines to mothers living in Suncheon who gave birth to more than three.

Methods: Using the online survey tool Survey Monkey, the mother was sent a questionnaire in a cell phone text to answer the questions on their cell phones. The mothers' contact information was based on the application form for a woman with three or more children, and a total of 27 people were surveyed and 20 responded.

Results: The lowest level of satisfaction was 51 percent, the highest level of satisfaction was 100 percent, and the average was 86 percent.

Conclusions: As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free herbal medicine support program is generally high,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business continuously.

And if other oriental medicine treatment is applied, more positive effect can be expected.

Key Words: Postpartum Period, Herbal Medicine, Surveys and Questionnaires

I. 서 론

산욕기는 태아, 태반 및 그 부속물의 반출 후에 생식기관이 비임신 상태로 회복되는데 필요한 일정한 기간으로, 대략 6~8주가 소요된다¹⁾. 산욕은 원래 임신과 같은 하나의 생리현상이지만 대체로 체력이 허약해 있는 상태이므로 생활과 섭생을 통하여 산욕의 복구를 촉진하고 허약으로 인한 합병증 내지 병발증의 발생을 방지하고 체력의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²⁾.

《婦人大全良方》에서 “산후 1개월 이내에는 針線, 勞役, 行房을 삼가도록 하여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고, 산후 100일 이내에는 七情, 言語, 風寒 등을 주의하게 한다. 만약 이러한 금기를 어기게 되면 각종 질환이 발생한다.”라고 하여 산후 생활 전반에 대한 주의 사항과 예후를 밝히고 있다³⁾.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산모의 전신적 생리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의 조리와 섭생상의 주의를 강조하며⁴⁾, 산후의 부조화와 불균형으로 인하여 이후에 나타날 만성적인 기능 장애 및 질병의 예방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⁵⁾.

산후풍이란 우리나라에서 예부터 항간에 부인이 아기를 분만한 뒤 산후 관리를 올바로 하지 못하여 얻은 병을 모두 집약하여 널리 통용되고 있는 속칭 병명의 하나로⁶⁾ 출산이나 유산 후에 신체허약하거나 조리와 섭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얻은 각종의 증상들이다. 고전 의서를 통해 산후풍이라는 병명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產後 關節痛, 產後 身痛, 產後 遍身疼痛의 명칭으로 기술되어 왔다⁷⁾.

한의학적으로 출산 후에 氣血虛弱하고 虛損이 회복되지 못하여 허한 틈을 타서 風, 寒, 濕, 瘀의 사기가 인체에 침입하여 氣血이 凝滯되거나 經脈이 失養하여 사지와 체간에 동통 및 시림과 저림 등의 감각 이상을 일으킨다²⁾. 또한 수유와 육아 과정에서 생기는 심신의 허손과 칠정상은 다양한 전신 및 정신적 증상을 유발한다⁸⁾.

양의학적 원인으로는 출산 시 허리와 골반에 무리, 산욕기에 근육과 관절의 과사용, 기존의 근골격계 통증의 존재, 내분비 요인, 스트레스 등이 있다⁸⁾.

산후풍의 발생률에 대하여 명확히 보고된 바는 없으나, 유⁹⁾는 부인과 외래 초진 환자 총 1162명 중 산후풍으로 분류된 환자는 153명으로 13.2%를 차지하였고, 김¹⁰⁾은 부인과 입원환자 54명 중 산후풍으로 분류된 환자는 16명으로 입원환자의 29.6%를 차지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비율은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한 산모가 출산 혹은 유산한 후 산후풍에 이환될 확률을 반영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발생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⁸⁾.

이처럼 산후풍은 유병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질환이지만 산후조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산후에 적절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하여 저자는 한방첩약의 복용이 산모들의 산후조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동신대학교 순천한방병원에 내원하여 무료로 한방첩약을 복용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정책 운영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14년부터 순천시와 한의사회가 협약을 맺어 세 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후조리 한방첩약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20만원의 지원비용을 현재 40만원까지 상승시켜 지원하고 있다. 무료 한방첩약 대상자 신청 조건은 순천시에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들 중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청은 출생 신고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한방첩약 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관내 지정 한방 병·의원(47개)중 선택하여 이용하면 된다. 이중에서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동신대학교 순천한방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무료로 한방첩약을 복용한 산모들 2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약 20첩의 한방첩약을 복용하였다.

2. 연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인 서베이 몽키 (<https://ko.surveymonkey.com/>)를 이용하여 2018년 2월 초에 일괄적으로 산모들에게 핸드폰 문자로 설문지를 보내 핸드폰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산모들의 연락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란에 동의가 된 3자녀 이상 출산 여성 한방첩약 지원 신청서에 있는 내용에 의거하였으며, 총 27명에게 설문을 보낸 결과 20명이 응답을 보내 주었다.

III. 결 과

1. 무료 지원 한방첩약을 복용한 산모들의 특징

1) 나이, 키, 몸무게

첩약 복용 시점을 기준으로 산모들의 만 나이는 최저 26세, 최고 41세, 평균 35.84±3.72세였다. 키는 최저 152 cm, 최고 169 cm, 평균 159.79±4.06 cm였다. 몸무게는 최저 50 kg, 최고 70 kg, 평균 59.28±7.20 kg였다(Table 1).

Table 1. The Age, Height and Weight of Puerperae Who Took Herbal Medicine

	Classification	% (N)
Age	26 ~ 30	15% (3)
	31 ~ 35	25% (5)
	36 ~ 40	50% (10)
	41 ~ 45	10% (2)
	Total	100% (20)
Height	151 ~ 155 cm	10% (2)
	156 ~ 160 cm	50% (10)
	161 ~ 165 cm	30% (6)
	166 ~ 170 cm	5% (1)
	Total	95% (19)
Weight	46 ~ 50 kg	15% (3)
	51 ~ 55 kg	20% (4)
	56 ~ 60 kg	20% (4)
	61 ~ 65 kg	15% (3)
	66 ~ 70 kg	20% (4)
	Total	90% (18)

2) 세 자녀 출산 시 각 자녀별 출산방법
첫째 아이 출산 시 자연분만한 산모는 16명(80%), 제왕절개한 산모는 4명(20%)이었고, 둘째 아이 출산 시 자연분만한 산모는 16명(80%), 제왕절개한 산모는 4명(20%)이었으며, 셋째 아이 출산 시 자연분만한 산모는 15명(75%), 제왕절개한 산모는 5명(25%)이었다. 모든 산모들이 셋

째를 마지막으로 하여 출산하였고 넷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없었다(Table 2).

Table 2. How to Give Birth to Each Child

	% (N)		
	1st child	2nd child	3rd child
Natural childbirth	80% (16)	80% (16)	75% (15)
Cesarean section	20% (4)	20% (4)	25% (5)
Total	100% (20)	100% (20)	100% (20)

3) 셋째 아이 출산 전까지 진단받거나 수술한 질환의 유무
진단받거나 수술한 질환이 있는 산모는 2명(10%), 진단받거나 수술한 질환이 없는 산모는 18명(90%)이었다(Table 3).

Table 3. Past History of Disease or Operation Before the Birth of the Third Child

Past history of disease or operation	% (N)
Exist	10% (2)
None	90% (18)
Total	100% (20)

4) 무료 한방 첩약 복용 시기
셋째 아이를 출산 후 가장 이른 경우는 그날 당일, 가장 늦은 경우는 출산 후 152일 후에 한약을 복용하였다. 평균 39.4

일 이후 한약을 복용하였다(Table 4).

Table 4. Time Taken from Birth to Medication

Days	% (N)
0~29	8
30~59	10
60~89	0
90~119	0
120~149	1
150~179	1
Total	100% (20)

2. 산후풍 증상 양상

1) 출산 시기별 산후풍 증상 유무와 증상 분포

첫째 출산 후에는 증상이 없는 사람이 10명(52.6%), 전신 관절 통증이 6명(31.6%), 냉감 및 시린 감각이 4명(21.1%), 심한 부종과 체중 증가가 1명(5.3%)이었다. 둘째 출산 후에는 전신 관절 통증이 10명(50.0%), 증상이 없는 사람이 8명(40.0%), 냉감 및 시린 감각이 2명(10.0%), 심한 부종과 체중 증가가 1명(5.0%)이었다. 셋째 출산 후에는 전신 관절 통증이 12명(60.0%), 냉감 및 시린 감각이 7명(35.0%), 증상이 없는 사람이 4명(20.0%), 심한 부종과 체중 증가가 3명(15.0%)이었다. 각 출산 시기에서 발한이나 떨림 증상이 있었다고 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해당 질문은 중복 응답이 가능하였다(Table 5).

Table 5. Postpartum Symptom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Sequence of Birth

Symptom distribution	% (N)		
	1st child	2nd child	3rd child
None	52.6% (10)	40.0% (8)	20.0% (4)
Wrist, ankle, knee, back, shoulder pain	31.6% (6)	50.0% (10)	60.0% (12)
Cold or sour sense	21.1% (4)	10.0% (2)	35.0% (7)
Severe edema and weight gain	5.3% (1)	5.0% (1)	15.0% (3)
Sweat	0% (0)	0% (0)	0% (0)
Taking a tranquilizer	0% (0)	0% (0)	0% (0)

3. 산후에 받은 치료들

1) 무료 한방첩약을 포함하여 산후에 받은 한방 치료 여부

동신대 순천한방병원을 포함하여 외래에서 받은 한방치료를 조사하였다. 첫째 출산 후에는 치료 안 함이 10명(56.2%), 한약이 8명(42.1%), 부항이 2명(10.5%), 침과 뜸이 각각 1명(5.3%)이었다. 둘째 출산 후에는 치료 안 함이 13명(65.0%),

한약이 5명(25.0%), 침이 3명(15.0%), 뜸과 부항이 각각 2명(10.0%), 추나가 1명(5%)이었다. 셋째 출산 후에는 한약이 15명(75.0%), 침이 8명(40.0%), 치료 안 함과 부항이 각각 3명(15.0%), 추나와 약침이 각각 2명(10%), 뜸이 1명(5.0%)이었다. 해당 질문은 중복 응답이 가능하였다(Table 6).

Table 6. Types of Korean Medicine Care Taken by Postpartum Patients

	% (N)		
	1st child	2nd child	3rd child
None	52.6% (10)	65.0% (13)	15.0% (3)
Herbal medicine	42.1% (8)	25.0% (5)	75.0% (15)
Acupuncture	5.3% (1)	15.0% (3)	40.0% (8)
Moxa	5.3% (1)	10.0% (2)	5.0% (1)
Cupping therapy	10.5% (2)	10.0% (2)	15.0% (3)
Chunna	0% (0)	5% (1)	10% (2)
Herbal acupuncture	0% (0)	0% (0)	10% (2)

2) 무료 한방첩약의 처방명

산모들의 내원 당시의 각각의 상태를 고려하여 氣血兩虛인 15명(75%)에게 加味補虛湯을, 血虛인 1명(5%)에게 芎歸調血飲을, 虛勞인 1명(5%)에게 雙金湯을, 瘀血증세가 있는 1명(5%)에게 加味生化湯을, 부종증세가 있는 1명(5%)에게 體減薏苡仁湯을 처방하였다.

3) 무료 한방첩약을 복용하기 이전과 이후의 개인적 한약 복용 여부

무료 한방첩약 복용 전(20%)보다 복용 후(30%)에 개인적으로 한약을 먹는 횟수가 더 많았다(Table 7).

Table 7. Personal Herbal Medicines Taken Before and After Taking the Free Herbal Medicine

	% (N)	
	Before	After
Taken	20% (4)	30% (6)
Not taken	80% (16)	70% (14)
Total	100% (20)	100% (20)

3. 무료 한방첩약 복용 목적 및 만족도

1) 무료 한방첩약을 복용한 목적

건강하지만 산후조리를 위해서(70%)가 산후풍 증상 치료를 위해서(30%)보다 더 많았다(Table 8).

Table 8. The Purpose of Taking Medicine

	% (N)
Healthy but for preventing postpartum disease	70% (14)
For postpartum care	30% (6)
Total	100% (20)

2) 추후 자비로 한약을 복용할 의사 산후풍 증세가 없으면 복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20%였고 나머지 응답자는 산후풍 증상이 없더라도 산후조리를 위해 복용하겠다(50%), 산후풍 증상이 약하더라도 후유증 예방을 위해 복용하겠다(25%), 산후풍 증세가 심하면 복용하겠다(5%) 순으로 많았다(Table 9).

Table 9. Whether to Take Oriental Medicine Personally Or Not

	% (N)
Don't take it if the symptoms are weak.	0.00% (0)
Don't take it if there are no symptoms.	20.00% (4)
Take it if the symptoms are severe.	5.00% (1)
Take it for preventing postpartum symptom even if there are slight symptom.	25.00% (5)
Take it for postpartum care even if there are no symptoms.	50.00% (10)
Total	100% (20)

3) 무료 한방첩약의 만족도

가장 낮은 만족도는 51%였고 가장 높은 만족도는 100%였으며 평균 86%였다(Table 10).

4) 첩약 복용 이외에 더 받고 싶은 한방 치료

받고 싶은 한방치료는 침(30%), 추나(25%), 뜸(20%), 약침(20%), 부항(5%) 순으로 많았다(Table 11).

Table 10. Degree of Satisfaction with Free Herbal Medicine

Satisfaction degree	% (N)
50 ~ 59%	5% (1)
60 ~ 69%	10% (2)
70 ~ 79%	15% (3)
80 ~ 89%	10% (2)
90 ~ 100%	60% (12)
Total	100% (20)

Table 11. Korean Medicine Treatment Postpartum Patients Want to Take except Herbal Medicine

Treatment	% (N)
Acupuncture	30% (6)
Moxa	20% (4)
Cupping therapy	5% (1)
Chunna	25% (5)
Herbal acupuncture	20% (4)
Etc	0% (0)
Total	100% (20)

IV. 고 찰

우리나라를 비롯한 비서구 문화권에서는 잘못된 산후조리가 출산 후 여성의 만성적, 전신적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식하여 전통적인 산후조리 방식에 대한 신념과 실천을 중시하였다^{5,11)}. 배 등¹²⁾은 한국인의 산후조리 실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마지막 출산일이 6주 이상에서 10년 미만인 여성 104명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시 생활과 음식의 주의사항, 산후조리를 돕는 약물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생활상 주의점은 과로하지 않는다(30.61%), 한랭자극을 피한다(27.21%), 몸을 따뜻이 한다(16.33%), 스트레스를 피한다(7.48%),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한다(1.36%) 등으로 답하였고 음식상의 주의할 점은 찬 음식 피하기(22.38%), 딱딱한 음식 피하기(17.48%), 매운 음식 피하기(16.78%), 짠 음식 피하기(10.49%),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8.39%) 등으로 답하였으며 산후조리를 돕는 약물로는 한약(21.24%), 철분(15.04%), 호박(15.04%), 비타민(9.73%), 칼슘과 가물치(7.96%) 등으로 답하였다. 산후조리를 돕는 약물에 대한 질문에 한약으로 답한 응답자가 21.24%

로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산후조리를 돕는 역할로서 한약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후풍은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안 등¹³⁾은 건강한 만삭아를 출산한 산모 82명을 대상으로 산후건강과 산후조리 수행정도를 조사한 결과 산후조리를 잘하는 것이 산모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밝힌 바 있다.

산후풍이 발생하는 배경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중에는 에스트로겐이나 릴렉신 등의 호르몬이 증가하여 분만시 골반 관절의 가동성이 증가하는데 호르몬의 특성상 전신적 효과로 인하여 다른 관절의 가동성도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취약하게 된다⁸⁾. 둘째, 임신으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여 허리나 무릎, 발목의 관절에 부담이 가게 된다. 셋째, 육아, 가사일 및 수유 등으로 팔과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어깨, 팔꿈치, 손목 관절 주위의 근육, 건, 인대 및 신경에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넷째, 쇄석위의 분만 자세는 허리과 천장관절에 통증을 야기하고 자연분만시 골반 관절의 과도한 견인은 치골결합을 분리시켜서 분만 후 치골부 통증의 원인이 된다¹⁴⁾.

산후풍의 자연경과에 대한 민간의 속설은 잘 치료하지 않으면 장기간 유지되어 평생 고생한다는 것과, 추가 출산한 후 조리를 잘하면 자연 회복된다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속설은 근거가 없으며, 임상적 자연경과는 산모의 연령, 육아 환경, 태아의 건강 상태와 체중 등 다양한 인자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분의 산모들은 분만 1년 이내에 건강

상태를 회복하지만 부가된 스트레스나 질병, 혹은 오치에 의해 악화되거나 만성적 경과를 나타낼 수 있다. 국내 보고된 증례 연구들에서 제시된 치료 기간은 대체로 8주 이내에 호전을 보였다⁸⁾.

산후풍의 증상은 동통(주술 및 전신 관절통 52.1%, 요통 35%, 양측 하지 동통 10.6%, 편측 동통 마비감 13.8%), 전신증상(무기력 18.1%, 부종 12.8%, 땀 흘림 6.4%, 수족 마비감 18.1%, 수족냉 15.9%), 정신 신경계증상(심계정충 6.4%, 현훈 5.3%, 흥민 4.3%, 열 상충감 2.1%)으로 분류할 수 있다⁹⁾.

양방에서는 산후풍에 대한 특별한 질병 개념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대증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염진통제, 항우울제, 국소적 물리치료 적용 등이 이루어진다.

산후풍의 변증에 따른 치료방법은 다음과 같다. 血虛型의 산후풍에는 養血益氣, 溫經通絡의 치법을 적용하고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四物湯 加 乾薑 人蔘 白朮 皇基, 黃芪桂枝五物湯加味가 있다. 脾胃虛型의 산후풍에는 健脾除濕, 益氣止痛의 치법을 적용하고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香砂六君子湯加減, 補中益氣湯이 있다. 腎虛型의 산후풍에는 補益腎氣, 壯筋骨의 치법을 적용하고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養榮壯腎湯, 大營煎 合 檳蘇散이 있다. 血瘀型의 산후풍에는 養血活血, 化瘀通絡의 치법을 적용하며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身痛逐瘀湯이 있다. 風濕型의 산후풍에는 養血祛風, 散寒除濕의 치법을 적용하고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五積散 加減, 趁痛散이 있다⁸⁾.

산모들이 한약을 복용하여 산후조리 잘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순천시

는 주민등록지가 순천시이고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최근 출산일이 2014년 1월 1일 이후인 산모들을 대상으로 약 20만 원가량의 한방첩약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동신대학교 순천한방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무료로 한방첩약을 복용한 산모들 중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산모 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인 서베이 몽키(<https://ko.surveymonkey.com/>)를 이용하여 총 27명의 산모들에게 핸드폰 문자로 설문지를 보내 핸드폰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설문을 보낸 결과 20명이 응답을 보내 주었다.

설문에 응답한 산모들은 26~45세였으며 36~40세의 연령대가 50%로 가장 많았고 31~35세가 25%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신장은 151~170 cm였으며 156~160 cm가 50%로 가장 많았고 161~165 cm가 30%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몸무게는 46 kg~70 kg였고 51~55 kg, 56~60 kg, 66~70 kg인 경우가 각각 20%로 가장 많았다.

산모들의 출산 시 자연분만 여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 출산 시 자연 분만 한 산모는 16명(80%), 제왕 절개한 산모는 4명(20%)이었고, 둘째 아이 출산 시 자연 분만 한 산모는 16명(80%), 제왕 절개한 산모는 4명(20%)이었으며, 셋째 아이 출산 시 자연 분만 한 산모는 15명(75%), 제왕 절개한 산모는 5명(25%)이었다. 모든 산모들이 셋째를 마지막으로 하여 출산하였고 넷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없었다. 셋째 아이 출산 시 첫째, 둘째 출산

시에 비하여 자연 분만한 경우가 5%(1명)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아이 출산 전까지 진단받거나 수술한 질환이 있는 산모는 2명(10%), 진단받거나 수술한 질환이 없는 산모는 18명(90%)으로, 대부분의 산모가 진단받은 질환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단받은 질환은 '기타'라고 응답하여 질환명은 알 수 없었다.

한약 복용 시기는 가장 이른 경우는 출산 당일, 가장 늦은 경우는 출산 후 152일 후였고 평균 39.4일 이후 한약을 복용하였다.

산후풍 증세는 첫째 출산 후에는 없는 사람이 52.6%로 가장 많았고 전신 관절 통증이 31.6%로 그다음으로 많았으며, 둘째 출산 후에는 전신 관절 통증이 50%로 가장 많았고 없음이 40%로 그다음으로 많았으며, 셋째 출산 후에는 전신 관절 통증이 60%로 가장 많았고 냉감 및 시린 감각이 35%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해당 질문은 중복 응답이 가능하였다. 박¹⁵⁾은 산후조리를 위하여 부인과에 2주 이상 입원 치료를 했던 55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근골격계 39.3%, 생식기계 20.5%, 순환기계 14.7%, 기타 8.3%, 신경정신계 7.0%, 소화기계 6.6%, 호흡기계 2.3%, 비뇨기계 1.3% 순으로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중 자연 분만은 377명(68.42%), 제왕 절개가 174명(31.58%)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노¹⁶⁾는 ○○한의원의 홈페이지상에 1년간 368명이 산후 질환에 대해 상담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된 증상으로 통증 229예, 시린 증상 167예, 쭈시는 증상 27예, 저리는 증상 24예, 땀이 나는 증상 17예, 우울증 1예, 마비가 오는 증상 5예, 냉기가 돌아 생활이 불편한 증상 5예, 붓

는 증상 3예, 냉이 많은 증상 순으로 호소하였고, 이중 자연분만이 242예(71%), 제왕절개가 101(29%)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의 산모들은 다른 두 경우의 설문조사 대상자들과 비교하여 자연분만의 비율이 약 10% 정도 높았으며 주로 호소하는 증상이 근골격계 통증인 것은 다른 두 경우와 동일하였다.

증세 없음의 비율이 첫째 출산 후에는 52.6%, 둘째 출산 후에는 40%, 셋째 출산 후에는 20%로 출산 횟수가 증가할수록 산후풍 증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졌다. 전신 관절통이 나타날 확률은 첫째 출산 후에는 31.6%, 둘째 출산 후에는 50%, 셋째 출산 후에는 60%로 출산 횟수가 증가할수록 증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냉감 및 시린 감각은 첫째 출산 후에는 21.1%, 둘째 출산 후에는 10.0%, 셋째 출산 후에는 35.0%로 셋째 출산 후가 첫째 출산 후보다 약 15%정도 증가하였다. 출산 횟수가 증가할수록 산후풍 증세가 나타날 확률이 증가하였고 증상 중에서는 전신 관절통과 냉감 및 시린 증상이 대체적으로 출산 횟수와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화 또는 출산과 양육에 의한 기력저하가 원인으로 생각되며 출산 횟수가 증가할수록 더욱 산후조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껏 산후에 받은 한방치료를 조사한 결과 첫째 출산 후에는 치료 안 함(56.2%)이 가장 많았고 둘째 출산 후에도 치료 안 함(65.0%)이 가장 많았으며 셋째 출산 후에는 한약(75.0%)이 가장 많았다. 산후에 한약을 복용한 응답자는 첫째 출산 후에 42%, 둘째 출산 후에 25%, 셋째 출산 후에 75%였다. 이번에

복용한 무료 한방첩약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한약 항목에는 100% 응답하여야 하는데 응답자들이 질문의 취지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질문은 중복 응답이 가능하였다.

산모들의 내원 당시의 각각의 상태를 고려하여 氣血兩虛인 15명(75%)에게 加味補虛湯을, 血虛인 1명(5%)에게 芎歸調血飲을, 虛勞인 1명(5%)에게 雙金湯을, 瘀血증세가 있는 1명(5%)에게 加味生化湯을, 부종증세가 있는 1명(5%)에게 體減薏苡仁湯을 처방하였다. 산모들은 출산시 출혈과 기력 소모로 인하여 주로 허증의 상태였고 그에 따라 補氣, 補血하는 약을 처방하였다.

셋째 자녀 출산 후 무료 한방첩약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한약을 복용하였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료한방 첩약 복용 전에는 20%의 응답자들이 개인적으로 한약을 복용하였고 무료한방 첩약 복용 후에는 30%의 응답자들이 개인적으로 한약을 복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무료한방첩약을 복용한 후에 한약 복용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무료한방첩약을 복용한 이유로는 건강하지만 산후조리를 위해서(70%)가 산후풍 증상 치료를 위해서(30%)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Table 4에서 셋째 자녀 출산 후에 산후풍 증세가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20%(4명)에 그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나머지 산모들은 무료한방첩약을 복용할 시점에 산후풍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료한방첩약을 복용한 이후에 추후 자비로 한약을 복용할 의사가 있다는 산모는 80%였다. 산후풍 증세가 없으면 복

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20%였고 나머지 응답자는 산후풍 증상이 없더라도 산후조리를 위해 복용하겠다(50%), 산후풍 증상이 약하더라도 후유증 예방을 위해 복용하겠다(25%), 산후풍 증세가 심하면 복용하겠다(5%) 순으로 많았다. 추후 자비로 한약을 복용하겠다는 의사에는 이번 무료한방첩약에 대한 산모들의 만족도가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상당수의 산모가 자비로 한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점은 이번 무료한약에 대한 높은 만족도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이 한방첩약 지원 사업이 산모들에게 한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한약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무료한방첩약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만족도는 51%였고 가장 높은 만족도는 100%였으며 평균 86%였다. 무료로 복용한 것이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되며 만약 자비로 한약을 복용하였을 경우 이보다 다소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산모들의 주관적인 만족도 외에 증상 호전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측정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생각된다.

한약 이외에 무료로 받고 싶은 한방치료는 침(30%), 추나(25%), 뜸(20%), 약침(20%), 부항(5%)순으로 많았다. 무료한방 첩약을 복용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한약을 복용한 응답자가 20%였던 것으로 보아 무료한방첩약을 복용하고 나서 한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료한방첩약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86%이고 무료한방첩약을 복용한 이후에

개인적으로 한약을 복용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80%인 것으로 보아 무료한방첩약 지원 사업 이후에 한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생각되며 이는 앞으로 무료 한방첩약 지원 사업이 지속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침, 추나, 뜸 등의 한방 치료 역시 산모들의 요구에 따라 무료 지원 항목에 포함시켜 더 나은 치료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본 연구는 일개 병원,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조사 및 연구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V. 결 론

순천시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중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동신대학교 순천한방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무료 한방첩약을 복용한 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출산 횟수가 증가할수록 산후풍 증세가 나타날 확률이 증가하였고 증상 중에서는 전신 관절통과 냉감 및 시린 증상이 대체적으로 출산 횟수와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이는 노화 또는 출산과 양육에 의한 기력저하가 원인으로 생각되며 출산 횟수가 증가할수록 더욱 산후조리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무료 한방첩약의 만족도는 평균 86%로 높았으며, 자비로 한약을 복용하는 산모가 사업 전 20%에서 사업 후 30%

로 증가되었다.

3. 무료 한방첩약을 복용한 이후에 추후 자비로 한약을 복용할 의사가 있다는 산모는 80%였다. 산후풍 증세가 없으면 복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20%였고 나머지 응답자는 산후풍 증상이 없더라도 산후조리를 위해 복용하겠다(50%), 산후풍 증상이 약하더라도 후유증 예방을 위해 복용하겠다(25%), 산후풍 증세가 심하면 복용하겠다(5%) 순으로 많았다. 상당수의 산모가 자비로 한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점은 이번 무료한약에 대한 높은 만족도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며, 이 한방첩약 지원 사업이 산모들에게 한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한약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4. 무료 한방첩약 이외에 무료로 받고 싶은 한방치료는 침(30%), 추나(25%), 뜸(20%), 약침(20%), 부항(5%)순으로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료 한방첩약 지원 사업이 산모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높은 만족감을 느낀 산모들은 한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추후 산후조리나 그 외의 질환에 한약을 활용할 의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무료 한방첩약 지원 사업에 대한 꾸준한 정책적 지원과 첩약 외의 한방 치료의 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Received : Jul 13, 2018
- Revised : Jul 17, 2018
- Accepted : Aug 22, 2018

References

1. Kim DI, et al. Korean Medicine Gynecology & Obstetrics. 1st. ed. Seoul:Jeongdam. 2004:336.
2. Kim DI, et al. Oriental Obstetrics & Gynecology. 1st. ed. Seoul:Uiseongdang. 2012:344, 765, 766, 769.
3. U BJ. Jung-gug-bu-gwa-myeong-jeo-jib-seong. Bu-in-dae-jeon-yang-bang. Beijing:Hwa-ha-chul-pan-sa. 1988:213, 237.
4. Kim SY, Lee IS. Literature Study on the cause of Postpartum Wind-Stroke. J Korean Obstet Gynecol. 1993;6(1): 117-24.
5. Yu EK. Integrated postpartal care. 1st. ed. Seoul:Hyeonmunsa. 2004:13, 26, 27, 40, 65.
6. Bae WS. Choesin hanbang imsanghag. 1st. ed. Seoul:Sungbosa. 1989:753-63.
7. Song BK. Text book of oriental gynecology. 1st. ed. Seoul:Haenglim. 1992:98-108, 473-4.
8. Kim DI, et al. Hanbangbuingwa jeonmunui jinlyopyeonlam. 1st. ed. Seoul:Uiseongdang. 2017:280-2, 291-4.
9. Yu DR. Clinical studies on the general pain after childbirth. I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1997;5(2) :513-22.
10. Kim TH. Sanhoopoong in women's health.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2000;3(1):35-45.
11. Yu EK. Health promoting behavior for women's health : (An)analysis on meanings of sanhujori, Korean postpartal care. Journal of nursing query. 1993; 2(2):37-65.
12. Bae KM, Lee IS. The Study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on Postpartum Symptom among Korean, Korean resident in America and American. J Korean Obstet Gynecol. 2010;23(2):131-44.
13. An SH. Canonical Correlation between Korean Traditional Postpartum Care Performance and Postpartum Health Statu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5(1):44.
14. Ostgaard HC, Zetherström G, Roos-Hansson E. Back pain in relation to pregnancy: a 6-year follow-up. Spine. 1997;22(24) :2945-50.
15. Park JK. Study on the Various Symptoms of Women in Early Postpartum Period-For Postpartum Women who Admitted in to Gynecology ward of Oriental Medicine Hospital.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osuk University. 2010:3-7.
16. Roe JE. Study on the Postpartum Symptom of Women Who Have Undergone Delivery and Abortion-Focusing on the Patients Consulting through Internet Homepage on Postpartum Symptom.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2004:58.